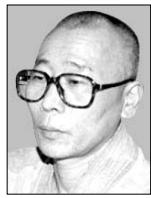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엄불선' <3>



일심이란 무엇인가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성취해야 할 법이 왜 일심(一心)인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심법을 세운 것은 법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승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으니, 일심 밖에 다시 다른 법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무명(無明)이 자신의 일심을 미혹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키고 육도(六道)에 유전한다.

소>에서는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중생심의 바탕 뒤(衆生心之爲心地)은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어서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심은 연기의 세계관을 신해(信解)하여 '연기즉공(緣起即空)'을 통찰함으로써, 일체 경계는 일심임을 주체적으로 증득한 지해입니다. 일심(一心)은 대승의 유일한 법(法)이며, 여래의 마음이고, 중생심의 본성입니다. 무아의 생명이며, 나의 생명이고, 우주적 생명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도의 물결을 일으키지만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않는다. 진실로 일심이 움직여 육도를 짓기 때문에 널리 제도하려는 원을 일으킬 수 있다. 육도가 일심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동체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심을 제거해야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일심은 자신에게 있으면서 일체의 경계를 포함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는 마음이고, 일체경계는 보이는 마음입니다. 곧 일체경계는 자신의 마음이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심의 경지에서는 색

깨끗함과 더러움, 본성은 둘 아닌 하나 일체 경계가 자기 마음과 다름바 없어

일심이라고 이름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들어 있어 거짓과 참됨의 두 분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들어 있는 곳이 모든 법 가운데의 실체이다. 허공과 같지 않아서 본성이 스스로 신령(神靈)하게 이해(理解)하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色)과 심(心)이 둘이 아니고,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이라는 상대적 개념도 사라져 버립니다. 원효는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우려려 믿어야 한다(仰信)고 하였습니다. '우려려 믿어야 한다'는 것은 곧 종교적 신념입니다.

일체 경계가 자신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일심을 깨달아야, 주객이 한몸인 줄 알고 자비의 마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심을 대승의 유일한 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심이라고 이름한 뜻은 진여가 일체법의 본질이지만, 분별심이 없고 신령한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원효에게는 깨달음 혹은 열반이라 하여도 그것은 일심의 다른 이름이며, 정토 역시 종교적 신념으로 연원해야 할 세계인 동시에 스스로 깨달아 일심의 바다에 나아가는 한 문이었습니다. 이치가 가이러한 때문에 허망한 번뇌를 여의고 꿈에서 깨어나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면,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 등 일체의 상대적 경계는 일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주요>에서는 일심(一心)은 번뇌에 물든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의 본체임을 이해하도록 중생심의 본성(衆生心性)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미타경

일심의 근원에 있는 사람이 불보(佛寶)입니다. 일심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법보(法寶)입니다. 일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승보(僧寶)입니다. 일심은 곧 삼보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금강선원 해거스님의 선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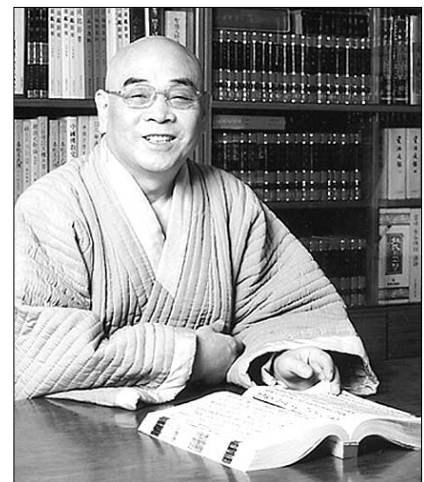
초심자 위한 '좌선의' 출간

4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발당에 자리잡은 금강선원(cafe.daum.net/sunmoontemple). 비교적 넓은 법당에 가득 자리를 메운 300여 불자들이 원장 해거(德敬)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누다라삼삼보리를 얻으시 되 실로 얻으신 것이 없다는 것은 최상의 지혜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아누다라삼삼보리는 배우고 익혀서 얻는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념을 내버려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거 스님이 <금강경>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을 원문과 함께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자,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강경> 법문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이달은 참선을 위주로 도심 포교를 해 온 금강선원이 개원한 지 16주년을 맞은 달. 1988년에 해거 스님이 처음 법당을 열었을 때만 해



해거 스님.

도 함께 공부하던 신도는 1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매주 1회 3개월간 진행되는 기초참선반, 이곳을 이수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참선법회를 갖는 정수회(회장 김은민)를 중심으로 한 참선 공부와 신도회(회장 박영희)의 경전 공부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져 왔다. 2000년 3월부터는 강원도 홍천에 참선 수련도량 '선문장(033-433-5845)'을 개설, 주말 및 하계수련회와 산철 결계도 열고 있다.

해거 스님은 불교TV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유식30송> 등 '경전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근 초심자를 위한 참선책 <참나-좌선의 강의>(선문출판사)를 펴낸 해거 스님으로부터 참선 공부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금강선원 만의 독특한 공부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선원은 전통적인 조사선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입문자들을 위해서는 여래선(위빠사나, 지관법(止觀法) 등)의 장제도 도입하여



홍천 선문장에서 수련생들이 참선하는 모습.



수련생들에게 보현선을 지도하는 해거스님.

기본은 '내 안' 들여다 보기

수행원칙

- 망상 가라앉히기
· 내려놓기
·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자기와의 만남 갖기
· 늘 깨어있기

여래선 잠정 실참에 가미 염불 · 독경 등도 권장

참선문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녹용을 먹이는 것 같은 우물법할 수도 있지요.

▲참선 공부의 요체는 무엇인가요.
-한번은 수덕사 해암 스님을 찾아 뵈고 공부에 대해 여쭙자, 노장님께서 '공부는 반조(返照) 밖에 없어'라고 하시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반조가 과연 무엇일까?' 궁구하다가 참선 수행으로 경지에 이른 스승 스님께 그 방법을 여쭙고 공부의 가닥을 잡게 되었지요. 우리들의 눈 귀 코 입은 밖으로만 향하는 데 비해 반조는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밖의 사물에 끄달리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 보는 회광반조(迴光返照)는 참선수행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다졌을 때 수행은 급진전하기 마련이어서, 모든 상황에서 반조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참선은 공부의 진척 상황을 알기 힘든데, 어떤 점검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의 경지는 부처님 말씀으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참선 수행의 결실을 부득이 논하

일상속 수행과제

- '빨리' 라는 말 사용않기
· '나' 빼고 말하기
· 스스로 느낀 것
화두삼아 정진하기

자면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고 비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이 뿌리까지 뽑혀져야 공부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비웠을 때 온 우주를 담은 만큼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선원에서는 참선 이외에도 염불, 주력, 사경 등도 권장하는 걸로 아는데요.

-염불, 참선, 주력, 사경, 기도, 독경 등 여러 수행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도로 통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모두 삼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부처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확신하고 발심해서 원력이 사무치면 지혜가 생기며, 나아가 응맹정진하면 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좌선의(坐禪儀)는 어떤 책?

해거 스님이 펴낸 <참나-좌선의 강의>는 3년전 스님이 다보수련원에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좌선의>를 강의한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책.

<좌선의>는 송나라 때 운종종의 선사 종색 스님이 펴낸 좌선 지침서. 종색 스님은 하북성 시방홍제선원에 주석하며 옛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10권의 <선원청규>를 편찬했는데 <좌선의>

는 이 가운데 제 8권에 수록된 내용이다.

해거 스님은 선 일반에 대한 설명과 실참법, 조사선과 화두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함께 수록하여 좌선에 관한 의의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스님은 책 후반부에 1700가지에 이르는 공안 가운데 옛부터 제방선원에서 가장 많이 참구되었던 오도기원(悟道機緣) - 선사의 출생과 출가인연, 그리고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통칭)을 가려 뽑아 함께 수록해 참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Advertisement for 'Bongunsa Children's Buddhist School' (봉은사 어린이불교학교) and 'Bongunsa Pyramid' (봉은사 파라미터). It lists enrollment dates (May 2018), target group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pplication materials (application form, ID card, etc.).

Advertisement for 'Fengshui' (풍수학) and 'Divination' (영부적). It features a book titled 'Fengshui Theory' (風水學論法) and 'Divination' (영부적).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prices, including fengshui consultations, divination, and seminars.